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8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	• 생활안전담당 박홍식 ☎440-1861 • 담당자 이광복 ☎440-1863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담당 김영신 ☎440-3851 • 담당자 채홍기 ☎440-38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도시철도 안전사고 재발 않도록 철저한 점검 지시
- 84개 승강기 사업자 특별점검, 3,052개 에스컬레이터 조사도 -

인천광역시는 8일 발생한 도시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오후 1시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에서 남동구청역 구간에서는 전동차 운행이 18분 가량 중단돼,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장과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긴급 주문했다.

우선,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84개 승강기 사업자(유지관리 51, 제

조·수입업 33)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는 이들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불량부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도시철도, 백화점 등 3,052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군·구와 함께 실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사항도 조사해 자체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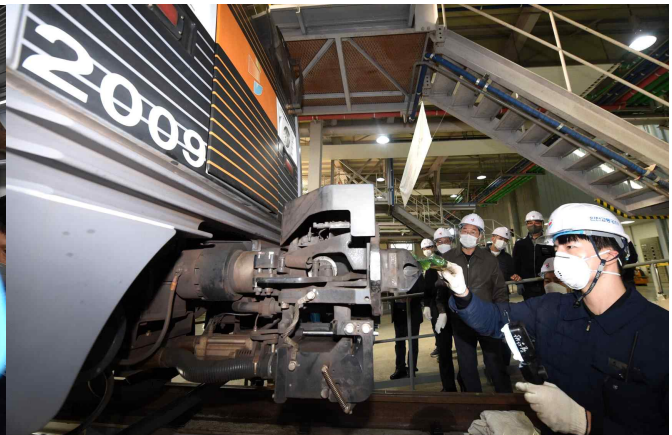
유정복 시장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은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며, “시설 곳곳의 안전시설에서 조금의 위험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반복해서 점검함은 물론,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 고 지시했다.

<관련사진> 지하철 등 현장 안전점검 사진

<관련사진>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6월 7일 지하철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1월 6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객실 밀집도를 점검하고, 운연차량사업소에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전동차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